



기독교대한감리회

청파교회

교회세운날 1908.5.1

너희도 서로
남의 방을
씻기 위하여 한다.

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
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
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

주 일 낮 예 배 순 서

【 환경선교주일 】 인도 1부 : 이범석 목사
(2부 선찬양: 90. 주 예수 내가 알기 전) 2부 : 김재홍 목사

- 전 주 반주자
- 임재의 기원 626.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(x3) 다 함께
- 예배로의 부름 김기석 목사
- ▲ 경배의 찬송 32. 만유의 주재 다 함께
- ▲ 공동기도 다 함께

자비하신 하나님,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분주한 삶을 멈추고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합니다.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. 이런저런 세상일로 찌그러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활짝 펴 주십시오.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, 새로운 한 주간을 새로운 마음과 영혼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.

주님, 온갖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. 그러나 주님,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연 세계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. 숲은 불타고, 빙하는 녹고, 어떤 생명은 멸종하고 있습니다. 부디 자기의 욕망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못 생명의 아픔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. 인간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
- ▲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
- ▲ 위로의 말씀 사61:1,2 인도자
- ▲ 교 독 문 113. 자연과 환경 다 함께
- ▲ 영 광 송 2.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
- 2부 대표기도 조항범 권사
- 2부 응 답 송 찬양대
- 2부 찬 양 79.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함께
- ▲ 성경봉독 눅 10:25~29 1부:인도자/2부:김정린 집사


“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” 봉 독 자
 “하나님, 감사합니다” 다 함 께

찬 양	I. 주는 백합화요	마중물 찬양대
	II. 세상 끝날까지	청과 찬양대
말 씬	우리 이웃은 누구인가?	김기석 목사
거둬 기도		다 함께
2부 특 송	꽃들도	환경부
▲ 봉 헌	317. 내 주 예수 주신 은혜(1:5절)	다 함께
▲ 봉헌기도		김기석 목사
공동체 소식		김기석 목사
▲ 평화의 인사		다 함께
▲ 보냄의 말씀		다 함께
<p>인 도 자 : 교우 여러분,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.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. 이 시대에 강도를 만난 우리의 이웃은 자연임을 잊지 마십시오. 자연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. 상처받은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.</p> <p>다 함 께 : 아멘. 욕심에 눈이 멀어 자연을 돌보지 않고 약탈만 해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. 이제라도 자연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.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우리의 이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. 내 몸을 사랑 하듯 자연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. 생명의 주님,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. 아멘.</p>		
▲ 찬 양	635. 주의 기도	다 함께
▲ 축 복		김기석 목사

	설교	기도	성경봉독	인도
다음주	1부 김기석	공동기도	인도자	이범석
	2부 김기석	박홍재	김광일	김재홍

 청과교회 페이스북 <https://www.facebook.com/chungpachurch/>

 청과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-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'예배실황' 클릭

 청과교회 카카오톡 채널 : 친구검색창에 '청과교회' 검색 후 채널 추가

※ 헌금계좌 : 새마을금고 9002-1751-3375-3 (예금주 : 청과교회)

